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19호 【루계 제24367호】 주체102(2013)년 11월 15일 (금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11월 14일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박봉주동지, 최태복동지, 오극렬동지, 곽범기동지, 문경덕동지, 로두철동지, 김용진동지, 한광복동지와 도당책임비서들이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는 크나큰 영광으로 하여 참가자들의 가슴은 세차게 설레이고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가 터져올랐다.

전체 참가자들은 불후의 고전적로작 《과학기술발전에서 전환을 일으켜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를 발표하시여 과학기술발전의 위대한 대강을 밝혀주시였으며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를 마련하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불타는 애국심을 지니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과학탐구의 길을 이어가고있는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는 나라의 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나라를 지식경제강국으로 전변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하시면서 높은 열의와 적극적인 참가밑에 자기 사업을 원만히 수행한 대회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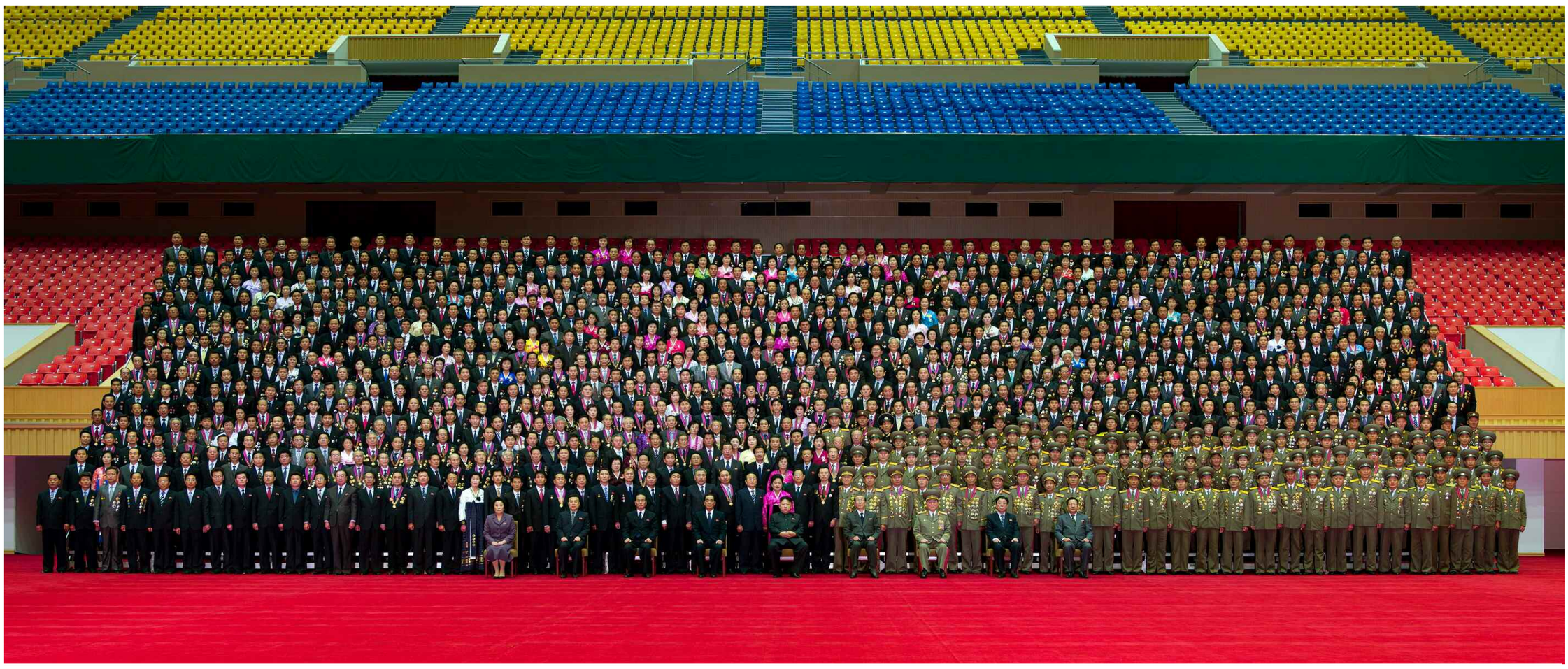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당과 조국앞에 지닌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과학기술성과로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을 앞당기며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떨치는데 적극 기여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 한몸 다 바쳐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과학기술대진군의 포성속에 인민의 리상이 꽃펴난다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에 참가하여 과학기술발전의 새로운 전성기에 들어선 시대의 거창한 숨결을 호흡하는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기상은 하늘을 찌를듯 높다.

과학자, 기술자들을 제일로 아끼고 내세워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믿음과 사랑을 받아안으면서 걸어온 길도 긍지높지만 가야 할 길은 더욱 영광넘칠것이라는 확신으로 하여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심장은 세차게 높뛰고있다.

전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이여!

세계를 디디고 올라설 담력과 배짱을 안고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새로운 과학기술혁명에 용약 뛰여들라!

력사가 지켜보는 이 책임적인 투쟁에서 조선사람의 존엄과 명예를 걸고 한사람같이 싸우자!

전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의 글발을 새겨안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체과학기술의 전성기를 펼쳐주신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으로 가슴 불태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학인재들은 나라의 재부이며 민족의 자랑입니다.》

과학기술중시로선, 인재중시사상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확고히 틀어쥐고오신 강성국가건설의 기치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가장 혁명적인 우리 사상, 우리 총대에 최신과학기술이 결합되면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변혁을 이룩하게 될것이며 내 나라, 내 조국을 불패의 강국으로, 모든것이 흥하고 번영하는 참다운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키게 될것이라는 철리를 밝히시고 사회주의조선의 강성번영을 위한 3대기둥을 억척으로 세워주신 걸출한 령도자이시였다.

예로부터 인재의 공보다 인재를 키우고 내세워준 위인의 공이 더 크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아무리 뛰여난 인재도 위인의 손길밑에서만 빛을 내고 진실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재능의 나래를 활짝 펼칠수 있다는것이다.

지금도 잊을수 없다.

우리 과학자들이 강성국가건설을 과학기술로 받들것이라는 령도자의 믿음과 그 믿음에 더 높은 과학연구실적으로 보답하려는 이 나라 지식인들의 엄숙한 맹세가 새겨지던 주체88(1999)년 1월의 감동적인 화폭을.

강성국가건설의 전환적국면이 열리던 그해의 첫 현지지도의 자욱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국가과학원에 새기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국가과학원의 한 연구실에도 들리시였다.

한 청년과학자가 마주하고있는 콤퓨터앞에 이르신 그이께서는 그가 한다하는 나라에서 개발한 고급한 수준의 프로그람을 자체의 힘으로 해석해내고 연구사업에 리용할수 있게 완성시킨데 대해 보고받으시고 못내 기뻐하시면서 콤퓨터화면에서 프로그람을 한번 보자고 말씀하시였다.

청년과학자가 어지간히 긴장되여있는것을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가 마음놓고 콤퓨터를 조작하도록 다정히 대해주시였다.

직접 연구한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한다하는 전문가들도 리해하기 어려운 독특한 프로그람에 대하여 그처럼 전문가이상으로 파악하고 가르쳐주시는 우리 장군님을 청년과학자는 경탄의 눈빛으로 우러렀다.

콤퓨터화면을 가리키시며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우리 장군님은 자애로운 스승이시고 그이의 말씀에 온넋이 끌리여 숭엄한 격정속에 우러르는 청년과학자는 그이의 제자였다.

우리 과학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첨단과학의 세계, 과학기술중시의 세계를 실지체험으로 받아안은 그날의 현지지도는 나라의 첨단과학기술발전에서 분수령을 이룬 뜻깊은 계기로 되였다.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연구소들과 연구실들을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강성국가건설에 이바지하게 될 최첨단과학연구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떠나시려고 차에 오르실 때였다.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을 나라의 재보로 그리도 귀중히 여기시며 사랑과 정을 부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국가과학원의 책임일군은 정중히 말씀올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과학원에 오신것을 장군님의 이해 첫 현지지도라고 생각해도 일없겠습니까?》

《그렇소, 그건 왜 물소?》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해 첫 현지지도로 우리 과학원에 찾아오셨다고 세상에 대고 큰소리를 치자고 그럽니다.》

《동무들이 내가 새해의 첫 현지지도로 과학원에 찾아왔다고 세상에 대고 큰소리를 치겠다고 하는데 올해에 들어와서 첫번째로 현지지도를 받았다고 큰소리를 쳐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장군님, 세상에 대고 큰소리를 치겠습니다.》

호탕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는 우리 장군님과 목메여 따라서는 젊은 책임일군,

이것이 어찌 국가과학원에만 수놓아진 감동깊은 화폭이라고 하겠는가.

생물공학분원에 가면 전문가들도 미처 생각지 못한 한마디 표현으로 과학자들이 개발한 첨단제품의 본질을 대번에 밝혀주시던 예지에 넘친 위대한 스승의 모습이 어려오고 함흥분원에 가면 과학연구사업에서도 과학자들의 사상이 기본이라고, 과학자들이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투쟁하는가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던 우리 장군님의 자애로운 음성이 들려온다.

때로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주시며 새로운 연구종자를 안겨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애어린 싹에 불과한 착상도 신중히 들어주시며 과학의 첨단세계에로 이끌어주신 절세위인의 그 손길아래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강자로 자라나게 되였다. 강성국가건설의 중요전구들을 실력으로 종횡무진하며 최첨단돌파전의 불바람을 일으켜가는 현대판 《홍길동》들로 자랄수 있었다.

과학자들은 지식인이기 전에 열렬한 애국자, 혁명가가 되여야 한다고, 과학자들은 불타는 애국의 열정을 안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해야 하며 혁명적인 연구기풍을 세워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야 한다고 하시며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우리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 다심한 그 손길아래 이 땅에는 과학기술중시의 혁명적기풍이 확립되여갔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해인 주체100(2011)년 1월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을 찾으시여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신 우리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가슴뜨겁게 되새겨진다.

《최첨단을 돌파하라!》는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과학연구사업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는 분원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이룩한 연구성과들을 주의깊게 들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세상이 환하도록 웃으시였다.

이 분원에서 세계적수준의 여러가지 생물공학제품들을 만들어냈을뿐아니라 세계를 딛고 올라설수 있는 최첨단기술을 소유한것은 일군들과 과학연구집단이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면서 과학연구성과로 강성국가건설위업을 빛내일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운데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장군님께서는 말씀을 이으시였다.

생물공학분원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이룩한 성과와 경험은 과학기술을 경제강국건설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뚜렷한 과시로 되며 모든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높은 당성, 혁명성, 인민성을 지니고 우리 당의 첨단돌파사상을 철저히 구현해나간다면 나라의 모든 부문을 최단기간안에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인민생활향상과 강성국가건설에서 놀라운 전변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

시험목장과 포전이 없어 연구사업에서 지장을 받고있다는 한 일군의 보고를 받으시고 즉석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신분도, 청사의 온도보장을 위하여 그날로 수십대의 대형랭온풍기를 보내주도록 해주신분도, 분원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에 반영하여 해결해주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분도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갈 열정을 안고 실험연구사업을 하여온 청년과학자들에게 온 세상 만복을 통채로 안겨주고싶어하신 우리 장군님이시였기에 그이께서는 명당자리에 현대적으로 일떠선 건물을 통채로 생물공학분원에 안겨주시여 으뜸가는 생물공학연구기지로 되게 하여주시지 않았던가.

절세위인의 이렇듯 크나큰 믿음과 사랑, 따뜻한 축복이 있었기에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와 애국의 열정을 다 바쳐 최첨단돌파전의 앞장에서 달려가는것이다.

그 사랑과 믿음속에서 평범한 과학자, 기술자들이 인민이 아는 영웅으로, 인민과학자, 공훈과학자로, 교수, 박사로 성장하였다.

드높은 혁명적열정으로 심장의 더운 피를 끓이며 첨단에서 최첨단으로 과학기술의 요새들을 점령해나가는 혁혁한 성과들을 거두었다.

어버이장군님 바라시는대로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우는 성과의 열매들이 주렁지게 하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에 대한 우리 장군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의 세계를 그대로 이어 오늘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이 세상 만복을 안겨주고계신다. 그 사랑, 그 은정속에 10여년전 그날의 국가과학원의 과학자들만이 아닌 이 땅의 수많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신심드높이, 배짱에 넘쳐 주체적인 과학기술로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치고있다.

과학부문에는 아낌없이 투자하여야 한다고, 과학기술로 발전하고 과학기술로 살아가는 현시대에 남들이 걸은 길을 따라만 갈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세기를 주름잡아 도약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세계를 굽어보는 야심만만한 배짱과 민족적자존심을 안겨주시였다.

과학과 인재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혁명을 해야 나라가 흥한다고, 당에서는 앞으로 과학교육부문 일군들을 위한 살림집과 휴양소를 일떠세우는것을 건설분야에서 주타격방향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뜨거운 사랑, 다심한 은정도 거듭 베풀어주시였다.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창조의 생눈길을 걸으며 남모르는 마음고생도 겪고 힘겨운 극한점을 돌파해나가야 하는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있어서 애국의 기둥, 신념의 기둥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과학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고 하시며 온 나라에 과학기술중시열풍을 일으켜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배심은 든든한것이며 신심은 용솟음치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천겹만겹의 성새로 뭉쳐 최첨단돌파전으로 최후승리의 지름길을 열어가고있는 우리 과학자, 기술자대군의 앞길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축복해주신다.

최첨단돌파전을 더욱 힘있게 벌려 위대한 우리 당, 김일성조선을 온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라고.

본사기자 리금분

몸소 찾으신 시험포전

— 강성국가건설의 전초병들로 키우시던 나날에 —

어느해 가을이였다.

농업과학원의 한 과학자가 간석지논농사의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냈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뒤로 미루시고 시험포전에 몸소 나오시였다.

포전에 들어서시여 누렇게 익어가는 벼이삭들을 만족하신 눈길로 바라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손수 벼이삭 하나를 드시고 그 알수까지 세여보시였다. 그러시고는 간석지논농사방법을 연구한 과학자의 손을 따뜻이 잡으시고 아주 큰일을 했다고, 대단히 훌륭하다고 거듭 평가하시며 그의 어깨를 다정히 두드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벼농사를 잘 지을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한 과학자가 당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참으로 큰일을 해놓았다고 하시면서 과학자로서 응당 할 일을 한 그에게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일군들이 식사시간이 지났다고, 어서 돌아가시자고 말씀올리였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작황이 좋은 시험포전을 보았더니 식사를 안해도 든든하다고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였다.

학위학직소유자들이 흘린 눈물

10여년전 9월 어느날이였다.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전자도서관건설과 관련한 가르치심을 주시다가 대학의 학위학직소유자들에게 천연색텔레비죤수상기와 고급양복천을 보내주자고 말씀하시였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인재육성사업을 위해 묵묵히 자기를 바쳐가는 그들에게 무엇인가 해주고싶으신것이 우리 장군님의 마음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였다.

며칠후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천으로 주면 그들이 언제 옷을 해입겠는가고 하시면서 품이 좀 들더라도 모두의 몸에 꼭 맞게 양복을 지어주자고 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어느날에는 옷전문가들이 대학에 찾아와 학위학직소유자들의 몸을 재고 그후에는 여러대의 차에 반제품을 모두 싣고와서 매 사람별로 옷시침까지 해가는 류례없는 광경이 펼쳐지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이 깃든 천연색텔레비죤수상기와 고급양복 그리고 와이샤쯔와 넥타이까지 받아안던 날 대학의 로교수들과 새 세대 과학자들이 흘린것은 고마움의 눈물만이 아니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최첨단과학기술을 소유한 유능한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낼 맹세가 심장마다에 타번졌다.

감사의 인사는 원수님께

우리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가 성과적으로 발사되였을 때였다. 어느날 이른새벽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찾으신 곳은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성발사장이였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엄지손가락을 펴보이시며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들과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으시였다. 그러시고도 무엇이 부족하신듯 다시금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고 그들모두를 평양에 초청해주시는 한없는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인공지구위성의 성과적발사를 위하여 누구보다 심혈을 바쳐오신분은 과연 어느분이신가. 실패에 주저앉지 말고 분발하라고 크나큰 믿음과 신심을 안겨주신분, 위성발사에 참가한 전체 성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랑의 조치도 취해주시고 녀성과학자들에게 고급화장품까지 안겨주시며 사랑에 사랑을 거듭 안겨주신분은 바로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이시였다.

그런데도 그 모든 성과를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고스란히 안겨주시니 모두의 심장마다에서는 누구보다 먼저 감사의 인사를 받으셔야 할분은 경애하는 그이이시라는 웨침이 터져나왔다.

본사기자 백영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라말라흐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
마흐무드 아빠스각하

나는 팔레스티나국가선포 25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팔레스티나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각하가 건강할것과 동부꾸드스를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창설을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정의의 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체102(2013)년 11월 14일 평양

인민의 편의를 첫자리에

주체70(1981)년 11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개관준비를 다그치고있는 청류관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풍치수려한 보통강반에 현대적인 인민봉사기지로 훌륭히 일떠선 청류관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는 그이의 안광에는 시종 밝은 미소가 한껏 어려있었다.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게 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여 환하게 웃음을 지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일군에게 이제 식당을 운영하면 하루에 손님을 몇명씩이나 받을수 있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일군이 올리는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반색하시며 한번 식사하는 시간을 몇분으로 타산했는가고 또다시 물으시였다.

그이의 물으심에 일군은 이번에도 주저없이 식사시간을 40분으로 잡았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동안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다가 40분이면 너무 짧게 타산했다고 무거운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무엇때문이실가?)

일군들모두는 그이의 뜻을 알수 없어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집에 반가운 손님이 오거나 친구들을 만나면 청류관을 찾을텐데 그래 식사나 한그릇씩 나누고 그저 헤여지겠는가, 이야기도 하면서 인상깊게 한때를 즐겨야 하지 않겠는가, 자신의 생각에는 한시간반도 짧을것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윽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나직이 말씀을 이으시였다.

《우리가 돈벌이나 하자고 술한자금과 자재를 들여 이렇게 훌륭한 식당을 지어놓은것은 아닙니다.

인민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마음껏 요구하면서 즐겁게 휴식하도록 하자는것입니다.》

그러시고는 일군들에게 그러니 시간타산을 다시 해야 하겠다고 거듭 이르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새길수록 일군들의 가슴은 후덥게 달아올랐다.

인민생활에 이바지할 훌륭한 봉사기지건설을 위해 다심한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고도 그것을 리용하게 될 인민들의 편의부터 먼저 생각하시는 어버이장군님,

진정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언제나 사소한것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고귀한 뜻을 지니시였기에 우리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이 즐겁게 보낼 식사시간도 무심히 대하지 않으시고 그토록 깊이 관심하시는것 아니랴.

본사기자 강철남

추악한 사대매국노, 극악한 동족대결광의 본색을 드러낸 박근혜의 떠돌이행각을 단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담화

사람이 사대에 빠져 제 주견을 잃으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에 물젖으면 나라가 망한다.

이는 파란만장의 우리 민족사가 보여주는 피의 교훈이다.

우리 민족의 구성원이라면, 이 땅에 태를 묻은 정치인이라면 그 누구든 랭엄한 이 진리만은 순간도 망각해서는 안될것이다.

그러나 괴뢰대통령자리를 차지하기 바쁘게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 대한 행각에 이어 지난 11월 2일부터 9일까지 서유럽나라들을 싸다닌 박근혜는 너무나도 상반된 언행으로 온 겨레를 경악케 하고있다.

우리는 박근혜가 어디를 돌아치든 개의치 않는다. 그러나 동족대결로 민족의 운명을 우롱하고 사대와 매국으로 일관된 천하역적행위를 일삼은데 대하여서는 스쳐지날수도, 용납할수도 없다.

집안에서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악설을 마구 뱉아놓는 박근혜의 못된 버릇은 해외에 나가서도 유감없이 발휘되였다.

박근혜는 이르는 곳마다에서 벌려놓은 그 무슨 회담들과 내외신기자회견들, 국회, 대학, 동포간담회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 경제건설과 핵무력강화의 병진로선이 《성공불가능》하다느니, 《북의 핵보유를 인정해서는 안된다.》느니, 가긍하고 알량한 제 처지에서 《북의 핵무기를 용납하지 않을것》이라느니 하고 희떱게 줴쳐댔다.

그런가 하면 그 누구더러 《옳바른 선택》을 하고 《진정한 변화의 길》에 들어서게 유도하자고 둔장질하다 못해 가소롭게도 그 무슨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가차없이 대응할것》이라는 폭언을 늘어놓기도 하였다.

남을 헐뜯고 비방하며 걸고드는데도 정도가 있고 동족대결에 환장이 되여도 분수가 있기마련이다.

박근혜는 이번에 서유럽이라는 이 지구의 한쪽변두리에 가서도 목이 쉬도록 우리의 《핵포기》에 대하여 또다시 떠들어댔다.

우리가 허리띠를 조이며 보유한 핵과 미싸일을 비롯한 자주적국방력은 다름아닌 북과 남, 해외에 사는 우리 민족의 공동의 재보이며 이것이 있어 우리 겨레가 전쟁과 분쟁이 없는 이 땅에서 숨쉬고 살고있는것이다.

우리의 핵과 미싸일은 미국의 핵전쟁참화를 막기 위한 강대한 억제력이며 나라와 겨레의 운명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보검이다.

자주와 존엄은 민족의 목숨우에 있다.

우리더러 핵을 포기하고 미싸일을 폐기하라는것은 결국 자주와 존엄을 내던지고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라는것이나 다름없다.

조선반도에 항시적인 전쟁위험을 몰아오는 미국의 핵과 미싸일에 대해서는 치마를 들고 아양을 떨며 반기고 민족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는 자위적보검에 대해서는 입에 거품을 물고 제거해버리자고 그리도 앙탈을 부리고있는것이 바로 박근혜이다.

그 애비에 그 딸이라고 박근혜가 이 세상에 삐여져나올 때 첫눈에 익힌것도 외세이고 애비로부터 물려받은것도 사대매국적기질이기때문일것이다.

박근혜가 떠든 그 무슨 《옳바른 선택》과 《진정한 변화》도 그러하다.

우리가 바라는것은 결코 허울좋은 미국식민주주의나 약육강식의 론리에 기초한 미국식시장경제가 아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민족의 리익을 최우선시하는 자주의 길, 자립의 길, 자위의 길이다.

바로 여기에 부합되게 정책을 작성하고 실천을 지향시켜나가는것이 가장 옳바른 선택이고 온 겨레가 소원하는 진정한 변화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북남관계도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민족우선, 민족중시의 원칙에서 자주적으로 풀어나가고있다.

이러한 우리더러 《옳바른 선택》을 하라는것은 남조선을 통채로 날강도 미국의 아가리에 떠밀어넣은 저들처럼 사대매국노의 전철을 밟으라는것이며 동족대결과 민족분렬, 외세공조에 피눈이 되여 돌아치고있는 저들처럼 민족반역의 길에 들어서라는 어처구니없는 요구라고밖에 달리는 볼수 없다.

옳바른 선택과 진정한 평화는 다름아닌 박근혜가 해야 한다.

감탕판의 갈게가 아무리 바로 놓아주며 닥달질해도 모로만 가는것처럼 유신이 뼈속까지 슴배고 독재가 행동방식인 박근혜의 체질이 달라질리 만무하다.

선군의 기치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더러 《변화》하기 바란다는 희떱운 소리 역시 낯간지럽기 그지없다.

《변화》는 강권과 권모술수에 의한 선거쿠데타로 《대통령》직을 강탈하고 유신과 독재를 일삼는 박근혜에게 전적으로 타당한것이다.

이번에 박근혜는 서유럽행각에 앞서 제 몸값을 올리기 위해 그 무슨 《북남정상회담》이라는것에 대해서도 떠벌이였다. 마치 제가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북남관계의 전도에 관심이라도 있는듯이 보이려 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저급한 인격만을 보여주었을뿐이다.

북남수뇌회담은 민족단합의 중요한 계기이며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하나의 공간이다.

그러나 상대는 사람값에 쳐주지도 않는데 제잡담 수뇌회담을 입에 올린것도 거북하고 렴치없는짓이지만 보다 꼴불견스러운것은 제 집안에서 잡음이 나오자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공개한 립장을 서둘러 접고나서 그 누구의 《기본적인 약속파기》를 거들며 《신뢰할수 없다.》고 투덜댄것이다.

그래 대화상대방을 겨눈 핵전쟁연습에 광분하고 전연일대에서 삐라살포와 심리전방송재개를 해대며 터무니없는 모략과 날조에 매달리는것이 박근혜식 《신뢰조성》인가.

적대감을 《신뢰》로, 대결을 《원칙》으로 삼고있는 그 삐뚤어진 머리에서 민족의 리익에 부합되는 좋은 소리가 나올수 없다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박근혜는 이번 서유럽에 앞서 진행한 지난 5월의 미국행각때는 물론 주변나라와 동남아시아나라들에 가서도 추악한 사대매국노, 동족대결광의 본색을 낱낱이 드러내보였다.

미국 뉴욕의 비행장에 단 한명의 미국정계인사도 마중나오지 않은데 대하여 모멸감을 느끼고 분노할 대신 상전에게 잘 보이기 위해 국회연탁에 나가 소경 징검다리건느듯 떠듬거리며 뜯개말 영어를 늘어놓아 만장의 조소거리가 된것만도 부족하여 영국이나 프랑스에 가서도 그 나라 말로 재잘대며 비지땀을 뿌려댄것 역시 역겹기 그지없다.

원래 국제무대에서는 제 나라 말로 대화를 하고 공식연설을 하는것이 보편적인 외교상관례이다.

지금 외국어에 능한 국가수반들이 제 나라 말로 연설하는것도 바로 그때문이다.

큰 나라에는 무턱대고 순종하고 발라맞추어야 한다는 노예적굴종이 체질화된 박근혜만이 서툰 외국말로 《연설》이라는것을 해댔던것이다.

오죽하면 우리 말을 줴던지고 해당 나라 말로 씨벌여댄 박근혜의 꼬락서니를 두고 남조선의 각계각층이 《민족적오욕의 극치》, 《국가원수의 지위를 상실한 순간》이라며 비난과 저주를 퍼부어댔겠는가.

지어 남조선괴뢰국회의원들까지도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공식언어는 우리 말이여야 한다.》, 《외국어실력을 뽐내기보다 대통령으로서 당당했으면 좋겠다.》고 한탄하고있다.

정치인으로서의 초보적인 존엄은커녕 민족성도 갖추지 못한 박근혜는 옷차림새도 유치한 통속잡지뚜껑이나 흥행물광고판처럼 얼룩덜룩 잡탕으로 골라잡았다고 한다.

그야말로 외국행각때의 박근혜의 처사는 휘파람을 불면 주인의 사타구니를 맴돌며 꼬리를 젓고 먹이를 내보이면 아양떠는 삽살개의 모양 그대로였다.

들가에 흔한 풀들도 대가 있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그래도 괴뢰대통령자리에 앉았으면 정치인으로서의 초보적인 주견과 나름대로의 자세야 견지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외세에는 엉치가 드러날 정도로 허리를 굽히며 아부하고 남조선안에서는 유신독재의 시퍼런 칼날을 마구 휘둘러 집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며 동족을 주적으로, 대결과 전쟁의 대상으로 삼고있는 박근혜의 모습에서 자주적대의 그림자를 찾아보려는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것이다.

권력에 무지가 더해지면 악행만 저지르게 된다.

정치가 사대로 고약해지면 매국배족적인 행위가 란무하게 되여있다.

미국상전을 하내비처럼 섬기면서 그 누구의 《도발》에 따른 전쟁불사까지 맹약한것을 보면 박근혜와 그 패당이 동족대결의 위험천만한 각본을 꾸미고 그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있는것이 분명하다.

언제나 극단으로 치닫는 모험적인 존재인 박근혜야말로 이 땅에 만가지 재난을 안아오는 화근중의 화근이다.

예로부터 야망은 야망에, 무지는 무지에, 대결은 대결에 부딪쳐 분쇄된다는 말이 있다.

박근혜는 민족을 등지고 미국상전만을 떠섬기다 비명횡사한 제 애비의 말로를 다시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터놓고 말하여 그에게 티끌만 한 자존심이라도 있다면 제 애비를 제거하게 만든 주범인 미국에, 그와 한짝이 되여 돌아치는 온갖 추종세력들앞에 그렇게까지는 아부하지 못할것이다.

유아독존적기질에 허장성세증, 과대망상증, 동족대결증을 비롯하여 유신독재자의 못된것들이 그대로 유전되였는데 그 말로가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그 누구도 단언할수 없다.

박근혜의 해외행각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사대와 매국, 동족대결과 시대역행으로 일관되여있다.

민족을 등지고 외세에 빌붙는 시대착오적인 역적행위는 스스로 제목을 조이는 결과를 촉진시킬뿐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이 기회에 박근혜와 그 패당에게 다시한번 엄숙히 경고한다.

첫째로, 우리의 핵에 대하여, 우리의 병진로선에 대하여 더이상 함부로 재잘거리지 말아야 한다.

미국상전이 하라는대로 청을 돋구면 돋굴수록 사대매국노, 동족대결광으로서의 만고대죄가 더더욱 커지게 될것이다.

남의 정신으로 살고 남의 풍에 노는것보다 더 가련한 정치적머슴은 없다는것을 똑바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둘째로, 그 누구의 《변화》를 유도한다고 주제넘게 놀아대지 말아야 한다.

강성한 래일을 지평에서 바라보고있는 우리는 민족이 바라고 겨레가 소원하는 모든 꿈을 우리가 결심하고 선택한 길을 따라 우리 식으로 신심드높이 이루어나가고있다.

《변화》는 우리가 아니라 유신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있는 박근혜와 그 추종세력들이 해야 한다.

박근혜는 오래전부터 남조선인민들도 사대의 길, 매국배족의 길이 아니라 우리를 따라 남조선사회를 변혁해나가고있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셋째로, 신뢰를 쌓고 《국가원수》로서의 대접을 그리도 받고싶다면 제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처신해야 한다.

제 대접은 제가 받는다 하였다.

그 누구의 《약속파기》에 대하여 말하기에 앞서 민족공동의 전취물인 모든 북남공동선언과 그에 따른 합의를 존중할 때 진정한 신뢰도 쌓아지게 되고 함부로 그 누구를 헐뜯으며 재잘거리지 않을 때 대접도 따르게 된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충고하건대 옥좌에 올려놓아도 늪가에 뛰여드는 개구리처럼 놀아대서는 안될것이다.

박근혜와 그 패당은 더 늦기 전에 제 정신을 차려야 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차후 움직임을 지켜보게 될것이다.

주체102(2013)년 11월 14일
평 양

다심한 어머니가 되여

한천수산사업소 초급당위원회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사이에는 허물이 없다. 어찌 보면 한집안식솔같다.

이것은 초급당위원회가 기술자, 기능공들과의 사업을 잘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지난 9월 공무직장 선체작업반에 들렸던 초급당비서 주광건동무는 기능공인 공명철동무의 얼굴에 그늘이 진것을 발견하였다.

생활상불편을 내색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 말은 배무이작업을 제기일안에 끝내기 위해 애쓰고있는 그를 알게 될수록 초급당일군은 더 잘 도와주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날 저녁 집뜨락에 들어서던 공동무는 놀랐다.

집수리에 필요한 여러가지 자재들이 쌓여있었기때문이였다.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의 관심속에 그의 집은 번듯하게 보수되였다.

기술자, 기능공들은 누구도 대신하지 못하는 사업소의 보배들이다.

그들의 생활을 잘 돌보아주는것은 응당한 일이다.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기술자, 기능공들의 가정을 정상적으로 방문하면서 생활에서 불편한 점이 있을세라 제때에 대책을 세워나가고있다.

일군들의 관심속에 올해에만도 1선단, 2선단의 기관장들을 비롯한 기능공들의 살림집이 대보수되게 되였다.

올해 사업소가 공화국창건 65돐을 맞으며 물고기잡이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배무이작업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하게 된 성과의 바탕에는 기술자, 기능공들의 정신력발동의 밑거름이 되여준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노력이 진하게 슴배여있다.

본사기자 손영희

당출판물체송사업을 스스로 맡아하는 참된 복무자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대혁신, 대비약이 창조되고있는 전투장들에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 총진군에로 부르는 당의 목소리와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이 안아온 혁신의 새 소식들을 담은 당보를 비롯한 출판물들이 지체없이 가닿게 하자고 남모르는 마음을 기울이고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좋은 날, 궂은날을 가리지 않고 묵묵히 당출판물체송사업으로 날과 달을 이어가는 청진외국선원구락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님식, 장군님식인민관을 지니고 인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며 낡은 사고방식과 틀에서 벗어나 모든 사업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대중을 불러일으켜 대오의 진격로를 열어나가는 일군이 바로 오늘 우리 당이 요구하는 참된 일군입니다.》

그들이 이 사업을 자진하여 맡아안은것은 지금으로부터 7년전이였다.

초급당비서 황봉화동무는 어느 한 출장길에서 북부지구의 어려운 지형조건으로 체송사업이 애로를 겪고있는것을 목격하게 되였다. 그는 이 현실을 결코 외면할수 없었다.

당일군의 본분으로서는 물론 당원의 량심으로서도 허락되지 않았다.

그의 가슴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당의 목소리가 산골마을 인민들에게까지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할수 있을가 하는 생각이 떠날줄 몰랐다.

생각을 거듭하던 끝에 그는 자기 단위가 자진하여 이 일을 맡아안으리라 결심하였다.

이 단위는 물자수송으로 북부지구일대를 많이 다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었다. 이것이 그의 결심을 더욱 굳게 하여주었다.

황봉화동무를 비롯한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은 당보를 비롯한 출판물들의 머무름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여 강성국가건설에 떨쳐나선 온 나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로력적성과를 신속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사업에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치도록 대중과 마음과의 사업, 감정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갔다.

그리하여 주체95(2006)년 8월부터 그들은 지형이 불리한 북부지대의 여러 방면에 대한 체송사업을 진행해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이 처음부터 잘된것은 아니였다.

자기 단위의 물동량을 나르는 일이 기본이였던 운전사들이 출판물들을 나르는 일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었으며 밤에 신문을 받아와야 하는 곳에 들렸다가 사람이 없으면 그냥 돌아오군 하는 일이 때없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초급당비서 황봉화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동무들, 이 일을 결코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뵙고싶어하고 그이의 혁명활동소식을 손꼽아 기다리고있습니다. 조국의 방방곡곡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혁신과 기적의 소식들을 절박하게 기다리는 인민들의 마음을 풀어주는것은 우리자신의 일이며 당원들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은 운전사들을 비롯한 종업원들의 심금을 울렸으며 그들은 점차 이 일을 자기들의 응당한 의무로 여기게 되였다.

이 사업이 활기있게 진행되는데 맞게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보체송일지》를 만들어놓고 운전칸에는 《당보체송사업》이라는 명패를 붙여놓아 운전사들이 항상 당출판물을 실어나르는 일을 잊지 않도록 하였다.

운수직장에서는 연유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방향별에 따르는 수송과제를 제때에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운전사들은 운행길에는 곡선이 있을수 있어도 당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기들의 마음속에는 절대로 곡선이 있을수 없다고 하면서 무사고주행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갔다.

수송사업을 책임진 운수부원 김시경, 운전사 김동길동무들은 긴장한 수송과제를 수행하는 속에서도 체송작업반과의 련계를 가지고 체송조직사업과 작전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체송과정은 부닥치는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불굴의 정신을 요구하였다.

며칠째 억수로 쏟아져내리는 장마비로 도로가 막혔을 때였다.

운전사들인 김동길, 리경일동무들은 당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사업이 하루도 드티여져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수백리길이나 에돌아야 하는 멀고먼 체송길을 하루밤사이에 갔다왔다.

눈사태로 가파로운 령길에서 위험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였다.

아찔한 벼랑길을 따라 차를 몰아갈 때에는 자기들이 입은 옷을 벗어 불뭉치를 만들어 낭떠러지를 극복하였고 산중의 외통길에서 기관이 얼거나 고장나면 불을 때면서 기관을 녹이고 수리하며 굽이굽이 머나먼 길을 가기도 했다. 이런 일을 한두번만 겪지 않았다.

그들은 이 길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으며 더욱 긍지스럽고 보람있는 일로 여기였다.

또한 리해타산을 앞세우지 않았다. 거기에 드는 비용보다도 새로운 소식을 받아보는 인민들의 밝은 인상과 기쁨에 대해 더 생각하였다. 이제는 당보체송사업이 이들의 직능으로 되였다.

하기에 회령과 경원, 온성지구의 체송원들은 당출판물체송사업을 물심량면으로 도와주고있는 이들의 숨은 노력에 칭찬을 아끼지 않고있다.

어떤 평가나 명예를 바라지 않고 오직 인민의 참된 심부름군으로 살며 일해갈 일념을 안고 눈오는 겨울에도, 비오는 여름에도 출판물체송을 잘 도와준 이 단위는 주체96(2007)년 10월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게 되였으며 주체101(2012)년 11월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감사를 받아안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이들은 오늘도 강성국가건설의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사상정신적량식을 제때에 안겨주는데서 자신들의 값높은 삶의 보람과 영예를 찾고있다.

—강성국가를 향하여 질풍같이 달리는 대고조전투장들에 당의 목소리를 제때에 신속정확히!

자신들이 스스로 맡은 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크나큰 긍지를 안고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당출판물을 신속정확히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헌신분투하고있다.

본사기자 라명성

2013년 싱가포르녀자달리기경기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선수들 귀국

2013년 싱가포르녀자달리기경기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선수들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2013년 싱가포르녀자달리기경기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선수들이 14일 귀국하였다.

김혜경선수는 평시에 련마해온 높은 기술과 완강한 인내력을 발휘하여 녀자반마라손경기에서 제1위를 하고 우승컵과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이 경기에서 김혜성선수는 2위를 하였다.

평양역에서 관계부문 일군들이 선수들을 마중하였다.

체육인들이 쌍둥이자매선수들과 감독에게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경기성과를 축하하였다.

제14차 오교국제교예축전에 참가하였던 우리 교예배우들 귀국

제14차 오교국제교예축전에 참가하였던 우리 교예배우들이 14일 귀국하였다.

중국 하북성에서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된 축전에서 우리 나라의 체력교예 《날으자 더 높이》는 축전최고상인 금사자상을, 체력교예 《철봉과 류동그네날기》는 은사자상을 수여받았다.

평양역에서 박호준 문화성 부상, 관계부문 일군들, 예술인들이 마중하였다.

중국을 방문하였던 조선중앙통신사대표단 귀국

중국을 방문하였던 리호규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중앙통신사대표단이 14일 귀국하였다.

평양역에서 리춘근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과 도경창 주조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참사가 마중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훌륭한 가풍과 애국심

해주시 양지동 15인민반 리경심동무의 가정에서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한가정의 리익보다 먼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애국의 마음이 온 나라 가정의 가풍으로 되고있다.

우리는 해주시 양지동 15인민반 리경심동무의 가정생활을 통해서도 훌륭한 가풍이 자식들의 마음의 키를 자래우는 성장의 귀중한 토양이라는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에게는 말로 하는 애국이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애국이 필요합니다.》

리경심동무에게는 해주시 창검고급중학교에 다니는 두 자식이 있다.

아들 박금룡, 박위룡학생들의 성장의 자욱자욱에는 이 가정의 훌륭한 가풍의 숨결이 속속들이 슴배여있다.

리경심, 박귀철부부는 자식들의 가슴속에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정,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헌신성을 깊이 심어주어 나라의 기둥감으로 훌륭히 자라나도록 뜨거운 마음을 기울이였다.

어렸을 때부터 자식들의 손목을 잡고 원군의 길, 지원의 길도 함께 걸었으며 학습과 조직생활, 좋은일하기에서도 모범이 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었다.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가정으로 자랑떨쳐온 값높은 나날은 곧 자식들의 가슴마다에 애국심을 키워준 보람찬 날들이기도 했다.

지난 시기 금수산태양궁전을 훌륭히 꾸리는 사업과 사회주의건설장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힘있게 벌린것을 비롯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해 바쳐온 이 가정의 자랑은 끝이 없다.

자신과 가정의 행복보다 공민적의무를 다하는 길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는 부모의 모습은 자식들에게 참된 인생관을 심어주었다. 그 뜨거운 미풍의 열기는 그대로 가정의 가풍으로 억세게 이어지게 되였으며 자식들의 성장에 훌륭한 보약으로 되였던것이다.

부모가 걷는 지원의 길을 함께 걸어온 나날에 자식들의 가슴마다에 움터오른 조국애의 소중한 싹은 점차 억센 줄기를 뻗치기 시작하였다.

올해에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박금룡학생은 수천뿌리의 백도라지를 정성껏 마련하여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에 보내였으며 동시 《영원한 해님의 나라》를 창작한것을 비롯하여 여러편의 작품을 창작완성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지난 기간 수십의 파철을 모아 나라에 바쳤으며 얼마전에는 또 다시 많은 토끼를 길러 그것으로 토끼곰을 만들어 인민군군인들과 황해남도물길건설에 동원된 돌격대원들에게 보내주었다.

몰라보게 성장하는 아들들의 모습은 이들부부의 기쁨이였고 행복이였다.

리경심동무는 자식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군 한다.

《조국이 있고서야 가정의 행복도, 희망찬 래일도 있다. 나라를 위하는것이 우리 가정의 가풍이라는것을 한시도 잊지 말자.》

애국심은 때가 되면 저절로 형성되는것이 아니다. 새 세대들의 성장의 모습은 곧 부모들의 모습이며 훌륭한 가풍은 내 조국의 미래를 꽃피우는 비옥한 토양이다.

본사기자 전철호

동족대결정책은 조선반도긴장격화의 근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올해신년사에서 북남대결상태를 해소하는것을 조국통일위업실현을 위한 기본과제의 하나로 제시하시였다.

근 70년간에 걸치는 민족분렬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의 통일적발전과 번영을 이룩하려는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이고 의지이다. 그러나 북남관계는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배치되게 최악의 위기국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외세와 야합한 남조선괴뢰들의 반공화국대결책동으로 말미암아 북남사이의 정치, 군사적대결은 격화되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발발의 위험은 날로 증대되고있다. 현실은 해내외의 온 겨레가 남조선괴뢰들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을 철저히 짓부시고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라의 분렬을 종식시키고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북과 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는것입니다.》

북남대결상태의 해소는 조국통일을 위한 중대사이며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기본전제이다.

북과 남은 대대로 하나의 피줄을 이어온 동족이다. 동족을 적대시하면서 대결을 추구하는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고 북남관계를 파탄에로 몰아가며 통일위업의 전진을 가로막는 반민족적범죄행위이다.

비록 민족의 분렬로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있지만 그것은 결코 동족끼리 불신하고 대결해야 할 리유로는 되지 않는다. 조국통일이라는 민족공동의 큰 리익을 보지 못하고 협애하게 자기의 주의주장과 리념에만 매달리면서 동족을 적대시한다면 불신과 대결의 골만 깊어질뿐 민족적화해와 단합은 어느때 가도 이룩할수 없다.

조국통일은 어느 일방만의 리익을 위한것이 아니라 민족모두의 리익을 위한것이며 민족의 통일적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것이다. 세기를 넘어 지속되는 분렬은 우리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가로막고있으며 온 겨레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고있다. 나라의 분렬로 인적, 물적자원이 헛되이 소모되고 민족의 통일적발전이 지체되고있는것은 비극이 아닐수 없다. 민족의 분렬을 끝장내고 하루빨리 통일을 이룩하여야 조선민족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번영하는 민족으로 존엄떨칠수 있다. 그러자면 북과 남의 불신과 대결의 잔재를 털어버리고 화해와 협력으로 관계개선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북과 남이 불신하고 대결하여 얻을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북남대결로 피해를 보는것은 우리 민족이다. 북남대결상태가 지속된다면 나라의 평화를 이룩할수 없고 핵전쟁의 위험도 가실수 없다.

불신과 대결의 현 북남관계를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는것이야말로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막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이룩할수 있는 최선의 방도이다.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관계개선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는것이 중요하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떠나 북남관계개선에 대해 말하는것은 어불성설이다. 선언들의 존중과 성실한 리행에 북남관계개선과 나라의 평화, 통일이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새 세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평화번영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하고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애국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

우리민족끼리리념을 구현하는것은 북남대결상태해소를 위한 기본방도이다. 우리민족끼리리념은 외세를 중시하고 그에 의존할것이 아니라 동족과 힘을 합쳐 민족운명개척의 길을 열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반민족적인 외세의존정책이 아니라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에서 북남관계문제를 대하고 풀어나가야 한다.

민족분렬의 장본인은 미국이며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기본요인도 미국의 남조선강점에 있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우리 조국을 둘로 갈라놓고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는 민족분렬정책, 반통일대결정책이다. 자기 민족보다 외세를 중시하면서 그의 반통일정책에 추종하는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해치고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가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북남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조선괴뢰들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을 끝장내야 한다.

현 괴뢰당국의 시대착오적인 《대북정책》과 《원칙고수론》은 북남관계개선에 엄중한 장애로 되고있다. 괴뢰들이 들고나온 그 무슨 《신뢰프로세스》라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신뢰》의 간판밑에 북남사이에 불신과 적대감을 조장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극악한 대결전쟁각본이다. 현 괴뢰집권세력의 《대북정책》과 그에 따른 《원칙고수론》은 이전 《정권》시기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조금도 개선시키지 못했으며 오히려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마저 망쳐놓았다. 오늘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핵전쟁위기는 우리의 체제전복과 무장해제를 노린 남조선괴뢰들의 《대북정책》과 《원칙고수론》의 필연적산물이다.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위업에 막대한 해독적후과를 끼친 현 괴뢰당국의 《대북정책》으로써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수 없다. 그것은 북남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에 제동기적역할밖에 할것이 없으며 전쟁의 위험만 증대시킬뿐이다. 괴뢰패당이 《대북정책》을 고집하면 할수록 그것은 북남관계개선을 바라지 않으며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저들의 반민족적정체만을 더욱 드러내놓게 될것이다.

괴뢰집권세력은 말로만 《신뢰》니 뭐니 하고 떠들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먼저 동족대결관념부터 털어버려야 하며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정치군사적도발소동들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을 무한정 가로막으면서 동족대결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 반통일역적들은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

북남대결상태를 해소하는것은 전민족적투쟁과제이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시대의 흐름과 민족의 지향에 역행하면서 외세와 결탁하여 반공화국대결소동에 광분하는 괴뢰보수패당을 단호히 규탄배격하며 6.15의 기치높이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전체 조선민족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올해신년사에서 밝혀주신 강령적지침을 높이 받들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 때 우리 겨레가 그토록 바라는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국가는 반드시 일떠서게 될것이다.

심 철 영

대결광신자의 역겨운 추태

남조선집권자가 반공화국대결기도를 완전히 드러내고있다.

얼마전에 있은 유럽행각기간 박근혜가 불어댄 《지정곡》은 《북핵폐기》와 《인권》타령이였다. 그는 유럽의 가는 곳마다에서 창피한줄도 모르고 매번 고장난 축음기처럼 같은 소리만 되뇌이며 《북의 핵포기와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적노력에 지속적으로 힘써달라고 애걸하였다.

지난 12일 서울에서 벌어진 《안보대화》에 보낸 《메쎄지》에서도 《북핵문제가 지역내 평화와 안정의 시급한 과제》니 뭐니 하며 외세에게 반공화국공조를 구걸하였다. 남조선집권자의 언동은 그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외면하고 외세의 힘을 빌어 우리와 끝까지 대결해보려 한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이 《북핵폐기》니, 《인권》이니 하며 외세에 반공화국공조를 청탁하는것은 북남사이의 관계개선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민족적재난을 불러오는 도화선이다.

지나온 북남관계가 보여주듯이 동족대결로 초래될것은 전쟁뿐이다. 남조선괴뢰들이 《북핵폐기》와 《인권》나발을 집요하게 불어대며 반공화국대결정책을 추구한 결과 북남관계는 전면파국상태에 처하였다.

현실을 통하여 남조선인민들은 보수패당의 동족대결책동이 계속되는 한 언제 가도 북남관계는 개선될수 없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도 이룩할수 없으며 전쟁위기만 고조된다는것을 뼈저리게 체험하였다. 남조선의 각계층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리행으로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할데 대하여 주장하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한것이다.

그런데 남조선집권자는 이미 그 실패가 명백해진 《대북정책》에서 교훈을 찾고 겨레의 지향과 민심의 요구대로 북남관계개선에 나설 대신 오히려 《북핵문제해결》을 중점추진과제로 내세우면서 반공화국대결기도를 더욱 로골화하고있다. 그가 제 집안에서 대결에 광분하다 못해 최근 뻔질나게 외세를 찾아 발이 닳도록 동분서주하며 반공화국공조를 구걸하고있는것은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을 한사코 모해압살하려는 범죄적야망의 집중적발로이다.

이번 유럽행각기간 박근혜가 칠면조처럼 하루에도 몇차례 옷을 갈아입고 잘 알지도 못하는 다른 나라 말을 앵무새처럼 외워댄것은 낯뜨겁기 그지없는 추태였다. 남조선집권자가 민족을 망신시키는것도 모르고 제멋에 겨워 치마바람을 일구며 동족을 해쳐달라고 외세의 바지가랭이에 바싹 매달렸으니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망동인가. 동족을 해치기 위해 외세에게 추파를 던지며 온갖 아양을 다 떠는 이런 창피스러운 외교는 어디 가서 돈을 주고도 볼수 없다.

사람이 자기 민족도 모르고 외세에 구걸하는데 습관되면 그렇게 되는 법이다.

《북핵폐기》니, 《인권》이니 하며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대결에 열을 올리는 괴뢰패당의 추악한 망동의 밑바탕에는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흐려놓음으로써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의 기치를 변함없이 들고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고 북침야망, 체제대결기도를 실현하려는 흉계가 깔려있다.

하지만 괴뢰들은 심히 오산하고있다. 외세와의 반공화국공조로 얻을것이란 겨레와 민심의 저주와 규탄밖에 없다. 외세에 의존하여 동족을 해치려고 날뛰는자들이 가닿게 될 종착점은 민족의 버림을 받고 력사의 준엄한 심판대에 오르는 길뿐이다.

제 대접은 제가 받는다고 하였다. 박근혜가 《대통령》이랍시고 해외행각으로 거들먹거릴 때 남조선에서는 《유신》독재의 부활을 반대하는 대중적항거와 규탄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남조선집권자는 자기가 남조선전역에 타오를 초불바다앞에 놓여있다는것을 망각하고있는것 같은데 이제라도 자기 처지를 생각해보는것이 좋을것이다.

남조선집권자는 자기의 경망스러운 행동으로 하여 어떤 화가 초래되겠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하여야 할것이다.

최 철 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괴뢰패당이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라는것을 《국회》에 제출한것과 관련하여 14일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1051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다.

최근 괴뢰통일부는 현 《정권》이 앞으로 5년간 추진할 《대북정책》방향이 담겨져있다는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라는것을 최종확정하였다고 하면서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북핵문제해결》을 중점추진과제로 쪼아박고 《북인권법》제정이니, 《탈북자》지원이니 하는 불순한것들로 채워넣었다.

그런가 하면 2007년 로무현 《정권》때 작성된 《제1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되여있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설치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에로의 전환 등은 다 빼버렸다.

이것은 임기 전기간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려는 속심을 그대로 드러낸것이다.

특히 10.4선언리행과 관련한 내용들을 전부 빼버리고 《핵문제》니, 《인권문제》니 하는것들을 집어넣은것은 북남선언들에 대한 전면부정이고 우리에 대한 용납할수 없는 도발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개악된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대해 《협력적인 정책들은 무더기로 빠지고 북의 반발을 초래할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북에 대한 대결적자세만을 더욱 드러낸것》이라고 하면서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우리는 이미 괴뢰패당이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초안이라는것을 들고나왔을 때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바로잡을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도전적으로 그것을 더욱 개악하여 《법》화하려고 하는것은 괴뢰패당이 얼마나 대결에 미쳐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준다.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북남관계발전계획이 아니라 단절계획이며 대결계획이다.

괴뢰패당이 이번에 그 무슨 계획이라는데서 《남북경제협력재개 및 대북투자허용의 검토》니 뭐니 하는것을 들고나온것은 내외여론의 비난을 모면해보려는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북남관계를 모두 차단하고 대결과 전쟁책동에 발광하면서 북남관계발전을 운운하는것은 내외여론에 대한 우롱이다.

괴뢰패당은 극히 불순한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전면백지화하여야 하며 동족대결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하여야 한다.

우리의 거듭되는 충고에도 불구하고 대결책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리명박역도와 같은 수치스러운 파멸을 면치 못할것이다.

본사기자

통일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할것이다

《한통련》결성 40돐을 기념

일본에서 발행되는 교포신문 《민족시보》에 의하면 《재일한국민주통일련합》(한통련) 결성 40돐 기념집회가 3일 일본 오사까시에서 진행되였다.

《한통련》성원들과 동포단체 일군들, 재일동포들 그리고 일본 인사들이 집회에 참가하였다.

손형근 《한통련》의장이 연설하였다.

그는 《한통련》이 결성이후 40년간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여왔다고 밝혔다.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갈수록 험악해지고있다고 하면서 애국세력의 단결로 남조선보수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추진시켜나가자고 그는 호소하였다.

집회에서는 북, 남, 해외단체들에서 보낸 축사와 련대사가 소개되였다.

발언들에 이어 결의표명들이 있었다.

집회가 끝난 다음 축하모임이 있었다.

모임에서 발언자들은 《한통련》의 가장 큰 목표는 통일이라고 하면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통일된 조국을 안아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 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어 《영상으로 보는 자주, 민주, 통일의 발자취》라는 제목의 록화편집물이 상영되였다.

국제로동기구 전교조의 법적지위보장을 요구

2일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국제로동기구리사회 로동자대표단이 전국교직원로동조합(전교조)에 대한 괴뢰정부의 탄압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남조선 《정부》가 해고자들에 대한 조합원자격은 로조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는 국제로동기구의 거듭되는 권고를 무시하고 전교조를 《법외로조》로 만들었다고 비난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교원들의 기본권리를 짓밟고있다고 하면서 남조선당국이 즉시 국제법에 따른 책임을 다하고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제로동기구 성원국들도 남조선당국에 압력을 가할데 대해 성명은 호소하였다.

독재통치에 맞서 싸울것이라고 강조

남조선의 연세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교육자들이 11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괴뢰패당의 《유신》독재부활책동을 규탄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참담한 오늘의 현실에 가슴을 치며 교육자의 량심으로 정의를 실현하려는 일념을 안고 이 자리에 나섰다고 언명하였다.

정보원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이 선거에 개입한것은 민주를 파괴한 죄악일뿐아니라 민중을 기만하고 우롱한짓이라고 규탄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분노의 초불여론이 들끓자 이를 막기 위해 남북적대분위기조성, 공안탄압 등에 매달리고있다고 단죄하였다.

독재통치에 맞서 싸울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남조선당국자를 단죄

영국에서 집회, 글 게재

영국의 정당, 단체들이 남조선당국자의 영국행각에 항의하여 7일 영국주재 남조선괴뢰대사관앞에서 집회를 벌리였다.

집회에는 영국신공산당, 영국공산당(맑스-레닌주의), 조선과의 친선협회 영국지부,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위원장 더모트 하드슨은 미국의 식민지인 남조선이 영국에 합법적인 국가처럼 대사관을 가지고있는것자체가 가소로운 일이며 박근혜는 《정권》을 찬탈한 독재자이라고 규탄하였다.

그는 남조선의 보수세력이 진보적인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하려고 발악하고있으며 전국교직원로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있다고 하면서 남조선괴뢰독재자의 방문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남조선독재자는 당장 물러가라》, 《조선은 하나다》 등의 구호를 웨치였다.

* *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와 주체사상연구소조가 5일 남조선괴뢰당국자의 영국행각을 반대하는 글을 인터네트홈페지에 실었다.

글은 박근혜가 괴뢰정보원 등 권력기관들의 선거개입으로 권력을 잡았다고 폭로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남조선은 력대적으로 인민의 피로 물들어왔다.

박근혜는 남조선의 광범한 근로대중이 아니라 1%의 부자들을 대표하고있다.

남조선은 자주적인 나라가 아니라 미제의 식민지이다.

파쑈괴뢰집권자 박근혜는 영국인민의 환영을 받을수 없다.

불법부정선거의 진상규명을 요구

남조선의 시민, 사회단체, 종교계, 정계인사 100여명이 1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련석회의를 가지고 괴뢰당국의 불법부정선거를 규탄하였다.

그들은 정보원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의 선거개입사건진상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실시할것과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정보원 원장 남재준, 법무부 장관 황교안의 해임을 주장하였다.

각계각층과 각 지역으로 시국선언운동, 서명운동을 확대해나갈데 대해 그들은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불법도청행위를 규탄

남조선의 진보련대가 4일 서울의 미국대사관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세계 수많은 나라들에서 불법적인 도청행위를 저지른 미국을 규탄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미국이 세계도처에 간첩활동을 위한 지부들을 꾸려놓고 도청시설을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난데 대해 언급하였다. 미국이 세계 각국 수반들의 대화까지 도청한것은 명백히 간첩행위로서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단죄하였다. 그들은 미국이 도청행위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남조선에 있는 도청시설들을 해체할것을 요구하였다.

* *

남조선의 진보련대가 7일 미국의 불법적인 도청행위를 규탄하는 론평을 발표하였다.

론평은 미국이 남조선을 포함한 수십개 나라와 지역을 《초점지역》으로 정하고 그곳 미군기지와 대사관 등을 통해 도청하며 간첩활동을 집중적으로 벌려온 사실이 폭로된데 대해 언급하였다.

미국이 불법도청행위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재발방지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첫걸음은 관련시설들을 즉시 해체하는것이라고 론평은 주장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독재가 찬미되는 놀라운 현실

얼마전 남조선에서는 《유신》독재자가 사살된지 34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그 무슨 《추도식》이라는것이 벌어졌다. 이 광대극은 남조선에서 《유신》독재의 부활이 과연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이날 《박정희기념재단》의 리사장 손병두라는자는 《유신시대가 더 좋았다.》느니, 남조선에는 《독재가 필요하다.》느니 하는 망언을 거리낌없이 내뱉으면서 파쑈독재부활에 우려를 표시하는 진보세력에 대해 《무지한 인간들의 생떼》라는 악담을 퍼부었다. 《새누리당》의원 심학봉이라는자는 지어 《유신》독재자를 《아버지대통령각하》라고 부르면서 이제는 딸이 《대통령》이 되였다고 눈물을 줴짰다. 경상북도지사라는자는 또 5.16군사쿠데타는 《구국의 결단》이라고 찬미해나섰다.

이런 놀라운 광대극과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였다. 민주당 대표는 긴급의원총회에서 《추도식》에서 울려나온 망언들을 듣고 가슴이 섬뜩했다고 하면서 2013년의 남조선이 40년전으로 되돌아갔다, 영구집권을 꿈꾸는 《유신》잔존세력이 독초처럼 자라났다고 성토하였다.

남조선의 한 언론은 《유신》독재자를 극구 미화하는 망동을 부린 보수패당에 대해 《〈유신〉교의 광신도》들이라고 규탄하였으며 다른 한 언론은 《유신》독재자를 《아버지대통령각하》라고 추어올린 《새누리당》패거리를 《성을 박씨로 고치는것이 어떤가.》고 야유, 조소하는 글을 실었다.

보다싶이 사태는 너무도 심각하다. 《유신》독재자가 류혈적인 군사쿠데타로 민주화에 대한 인민들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아버리고 온 남조선을 철창없는 감옥으로, 중세기적인 파쑈폭압과 인권유린의 암흑천지로 만들었다는것은 널리 공인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신》잔당들과 극우보수패거리들이 몸서리치는 《유신》독재를 공공연히 미화하는 망발들을 탕탕 줴치는것이야말로 경악을 자아내는 사태가 아닐수 없다.

《유신》독재의 부활은 남조선의 비극적인 정치실태이다. 《유신》잔여세력이 정계를 완전히 장악한것도 그것을 말해준다. 《유신헌법》조작에 적극 기여한 김기춘이라는자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등용되여 무제한한 권력을 행사하고 《유신》의 때에 찌들은 악질적인 친일파, 극우보수분자들이 사회 각계에 거미줄같은 진을 치고 《유신》독재미화와 파쑈체제구축에 열을 올리고있다. 특히 김기춘은 괴뢰정권의 5대 권력기관으로 불리우는 정보원, 감사원, 검찰, 경찰, 국세청의 우두머리들의 해임과 등용에 적극 개입하여 《기춘대원군》, 《부통령》으로까지 불리우고있다. 지금 이자는 집권자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권력의 요직들에 자기와 깊은 인맥관계에 있는 심복들을 들여앉히고있다. 이것이 독재체제구축을 위한 지반닦기놀음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남조선이 어찌 과거의 《유신》독재시대에로 되돌아가지 않을수 있겠는가.

최근 괴뢰집권자가 그 무슨 《새마을지도자대회》라는것을 벌려놓고 《유신》독재시대의 대명사인 《새마을운동》을 《성공한 민중운동》인듯이 뻔뻔스럽게 놀아대면서 그것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떠벌인것도 《유신》독재가 완전히 되살아난 남조선의 기막힌 현실을 잘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의 언론들은 《유신》독재부활에 환장해 날뛰는 현 괴뢰집권자가 력사를 뒤로 돌리려고 몸부림을 치고있다고 하면서 그러한 시도는 파멸을 부를뿐이라고 경고하고있다.

괴뢰보수패당이 《유신》독재의 부활로 심각한 정치적위기를 수습하고 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발악하지만 그것은 부질없는짓이다. 남조선인민들이 그것을 용서치 않을것이다.

현 괴뢰집권세력이 민주주의를 깡그리 유린말살하며 《유신》독재부활에 계속 미쳐날뛴다면 그들의 운명은 《유신》독재자의 가련한 운명과 결코 다를바가 없을것이다.

본사기자 리 효 진

진보세력말살을 노린 정치적모략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의 도수를 높여온 남조선괴뢰들의 책동은 이 당을 강제해산시키기 위한 단계에까지 들어섰다. 지난 5일 괴뢰법무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서를 《국무회의》와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망동을 부리였다. 법무부 장관이라는자는 이 당을 상대로 《국회의원》직상실결정청구와 정당활동중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할것이라고 떠벌이였다. 남조선에서 헌법재판소에 특정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이 청구된것은 력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괴뢰들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리유로 들고나온것은 그 무슨 내란음모사건이라는것이다. 청구가 끝난 뒤 괴뢰법무부 장관은 통합진보당에 《내란음모혐의가 있다.》느니, 당강령에 《문제가 있다.》느니 하고 떠들어댔다.

이미 폭로된바이지만 내란음모사건이라는것은 괴뢰보수패당이 정보원대선개입사건으로 인한 최악의 집권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꾸며낸 유치한 날조극이다.

현재 파쑈당국이 《국회의원》인 리석기를 비롯한 통합진보당 인사들을 내란음모사건 협의자로 몰아 체포하고 수사를 한 후 재판장에 세웠지만 그들은 사건내용에 대해 터무니없는 조작이라고 완강하게 맞서고있다.

하다면 괴뢰들이 들고나온 내란음모사건의 모략적내막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자.

괴뢰검찰은 리석기를 기소하면서 중간수사결과라는것을 발표하였다. 검찰관계자는 리석기가 《북에 추종하는 지하혁명조직》을 결성한 후 《지역별조직과 부문별조직의 총책》으로서 《내란음모를 위한 정연한 조직체계》를 갖추었다느니, 모임들에서 《정부기관시설파괴와 폭동을 음모》하였으며 《북의 주장에 동조》하고 《북의 혁명가요》를 불렀다느니 뭐니 하고 떠들었다. 그러나 괴뢰패당은 저들이 조작한 내란음모사건의 불순한 내막은 결코 감출수 없다.

지난 8월 28일 괴뢰정보원과 검찰은 리석기와 이 당의 관계자들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놀음을 벌리고 3명을 체포한데 이어 《비밀조직결성과 내란음모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리석기가 지난 5월 조직원들의 비밀회의를 열고 내란음모를 선동한 내용을 담은 발취록이 있다고 떠들었다. 그런데 그 발취록이라는것은 괴뢰정보원에 의해 매수된 타락한 통합진보당의 한 인물이 작성한것으로 드러났다. 이런것을 어떻게 증거로 볼수 있겠는가.

사건이 여론화되자 정보원대선개입사건으로 궁지에 몰렸던 《새누리당》패들은 살 때를 만난듯이 《정보원이 혐의사실을 확보》했을것이라느니,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느니 하고 피대를 돋구었다. 한편으로는 내란음모사건조작에 대한 야당들의 비난과 규탄에 대해 《정치권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것은 잘못된것》이라느니,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느니 하고 큰소리를 쳤다. 괴뢰보수언론들은 리석기가 《변장을 한채 도주중이며 현재 추적중》이라는 황당한 모략보도까지 내보냈다. 하지만 자기 사무실에 스스로 나타난 리석기는 자기에 대한 내란음모혐의와 《변장, 도주중》이라는 언론보도를 전면부인하면서 진실을 밝히고 무분별한 모략과 탄압에 맞서 투쟁할것을 다짐하였다.

내란음모사건조작에도 불구하고 초불집회와 시국선언문발표 등 정보원대선개입사건을 규탄하는 각계의 반《정부》투쟁이 계속되자 악에 받친 괴뢰보수패당은 사건을 더욱 확대하는데 달라붙었다. 《새누리당》패거리들은 리석기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하면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지 않는 의원들은 모두 종북세력이라고 위협하였다. 한편 괴뢰정보원은 리석기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 나온 1억 4000여만원의 돈을 무턱대고 공작자금이라고 요란히 광고하였다.

그러나 괴뢰당국의 사건수사놀음은 의혹만 더 크게 만들었다. 리석기의 공동변호인단은 《지하혁명조직이라는것은 그 실체가 없고 이름자체도 정보원이 만들어낸것》이라고 반박하였다. 야당세력은 정보원의 압수수색은 정보원개혁에 대한 각계의 요구가 높아가고있는 때에 나온것으로서 많은 의심을 가지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조선의 한 언론도 내란음모사건에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시작으로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을 로골화하려는 기도가 깔려있다고 평하였다.

괴뢰들이 통합진보당의 강령을 문제시하는것도 실로 어처구니없는것이다. 이 당의 강령에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세상》이라는 문구가 들어있는데 괴뢰패당은 무턱대고 이것이 《북의 주장과 동일》하다고 고아대고있다. 이 문구는 통합진보당이 명칭을 바꾸기 전인 민주로동당때부터 줄곧 사용한것인데 어떻게 되여 오늘에 와서야 문제시되고있는가 하는것이다.

더우기 스쳐지날수 없는것은 이 모략사건의 배경에 괴뢰패당의 동족대결흉심이 깊이 깔려있는것이다.

괴뢰들은 사건발생초기부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건을 우리와 련결시키면서 《북과의 련계를 밝히는데 사건수사의 초점》을 두고있다고 떠들었다. 하지만 남조선언론들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고 하면서 재판에서 사건과 《북의 련계를 립증》하는것이 검찰에는 《큰 부담》으로 될것이라고 전하였다.

모략가들의 사건조작은 개성공업지구정상화를 위한 회담이 성사되고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과 금강산관광재개를 위한 회담이 계획되여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가 고조되던것과 때를 같이하고있다. 파쑈광들이 몇년전부터 추적을 통하여 이미 자료를 확보하였다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이 시기에 불쑥 사건을 들고나와 그것을 우리와 억지로 결부시키며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소동을 개시하였는가 하는것이다.

력대로 괴뢰통치배들은 북남관계개선의 기미가 나타나고 조국통일에 대한 각계의 지향이 고조될 때마다 충격적인 사건들을 조작하며 동족대결에 열을 올리였다. 지금 괴뢰들은 그 상투적수법을 쓰고있다. 괴뢰보수패당이 사건조작에 매여달리면서 보수언론을 총발동하여 동족을 악의에 차서 비방중상하고 원칙론고수를 떠들고있는것도 그들의 대결적정체를 여지없이 폭로해주고있다.

내란음모사건의 모략적정체는 드러날대로 드러났다. 지금 통합진보당은 괴뢰당국의 사건조작책동에 맞서 법정투쟁과 단식, 삭발 등 다양한 형태의 항의투쟁을 전개하면서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남조선괴뢰패당이 극도의 통치위기를 모면하고 북남관계개선에 제동을 걸기 위해 또 하나의 요란한 정치모략사건을 조작하고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파쑈폭압과 동족대결소동에 기승을 부리고있지만 인민들은 그에 결코 속지 않고있다. 그것은 오히려 괴뢰보수패당의 악정을 끝장내고 자주, 민주, 통일의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각계층 인민들의 의지만을 굳세게 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장 윤 남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조선로동당의 앞길은 찬란하다

주체의 사회주의나라 조선이 미국의 그 어떤 군사적위협과 끈질긴 경제봉쇄속에서도 끄떡없이 승승장구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국제사회계는 인구의 1%가 인구의 99%를 착취하며 살아가는 자본주의사회와는 전혀 다른 조선의 사회구조,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인민은 당과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하는 거기에 그 비결이 있다고 한결같이 격찬하고있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조선로동당

인디아 델리주체사상연구회 위원장은 김정일각하의 당령도업적에서 특출한것은 조선로동당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신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사회주의집권당은 인민을 위하여 존재하며 조선로동당의 본분은 인민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이라는것을 밝히시고 당이 광범한 대중을 묶어세우는것과 함께 그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어머니당으로 되게 하는데 각별한 주의를 돌리시였다. 하나의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고 실천하는 경우에도 철저히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여 세우며 인민의 리익을 절대로 침범하지 않도록 하시였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김정은각하를 높이 모시고 어머니당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가고있다.

라오스신문 《행안》은 이민위천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신 김정일각하께서는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사업하시였다,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김정일총비서는 곧 조선로동당이였고 조선로동당은 그들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안아주는 어머니품이였다고 강조하였다.

로씨야신문 《브레먀 뻬레몬+TV》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며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는것은 조선로동당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다, 조선로동당의 정치는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일관된 인덕정치이다라고 전하였다.

인도네시아선봉자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서기는 이렇게 찬양하였다.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것은 조선로동당의 기본특징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과 혈연적뉴대를 이루고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는 어머니당으로 존엄떨치게 되였다.

오늘 조선로동당의 전투적위력은 경애하는 김정은각하를 최고수위에 높이 모심으로써 더욱 강화되였다.

기네예술대학 음악학부 학부장은 오늘 인민들로부터 어머니당으로 불리우고있는 조선로동당의 령도자는 김정은제1비서이시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김정은제1비서각하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으로, 그이께서 펼치시는 정치의 최고원칙, 최상의 목표로 되고있다. 인민사랑의 숭고한 풍모는 그이께서 지니고계시는 투철한 인민관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그이께서 펼치시는 인민사랑의 화폭은 공장과 농촌, 학교와 유치원, 탁아소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 방방곡곡에 끝없이 펼쳐지고있다.

조선인민은 김정은제1비서각하의 뜨거운 사랑에 누구나 감격을 금치 못해하면서 그이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열의에 넘쳐있다.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조선로동당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격찬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의 열렬한 지지와 진보적인류의 칭송을 받고있다. 그 비결은 조선로동당이 주체사상을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있는데 있다.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총비서께서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김정은제1비서각하에 의하여 더욱 빛나고있다.

베닌사회주의당 위원장은 만사람의 운명과 미래를 책임지고 보살피는 조선로동당을 인민들은 어머니당이라 부르며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고있다, 이러한 대중적지반을 가진 당이 언제나 불패이라는것은 력사가 보여주는 진리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인디아신문 《패션 인디아》는 《어머니당의 위대한 령도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들로부터 어머니당으로 불리우고있다. 어머니당의 위대한 령도자는 김정은제1비서이시다. 인민사랑은 그이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으로, 그이께서 펼치시는 정치의 최고원칙, 최상의 목표로 되고있다. 김정은제1비서께서는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여기신다. 조선인민은 김정은제1비서의 사랑에 감격을 금치 못하며 그이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신념에 넘쳐있다. 김정은제1비서를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은 어머니당으로서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으며 언제나 승리만을 떨쳐갈것이다.

방글라데슈선군정치연구소소불레찐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일성주석에 의하여 창건된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을 위한 당으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이 인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게 된 비결은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해온데 있다.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시고 김정일령도자께서 심화발전시키신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조선로동당은 영원히 승승장구할것이다

로씨야신문 《꼼쏘몰스까야 쁘라우다》 7일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을 모시고 《어머니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라고 칭송하고있다,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해나가야 한다는것이 김정은령도자의 정치철학이라고 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인민사랑의 정치를 그대로 이어가고계시는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신문은 조선인민은 김정은령도자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그이를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은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믿음속에 영원히 승승장구할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남아프리카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소는 《조선로동당의 필승의 무기—선군사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장구한 기간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운 조선로동당은 모든 사람들의 운명과 미래를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으로 찬양받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뜻대로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고계신다. 조선로동당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세계반제자주력량을 강화하고있다.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조선로동당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우루과이신문 《라 후벤뚜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소년단원들과 함께 계시는 사진문헌을 모시고 《어머니당의 위대한 령도자》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조선로동당은 인민들로부터 어머니당으로 칭송받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각하의 인민사랑의 풍모는 그이께서 지니신 인민관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인민을 위하여 령도자도 일군들도 있다는것,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믿고 그들에게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것이 바로 그이의 정치철학이며 생의 좌우명이다. 김정은각하께서는 일군들에게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뛸데 대하여 당부하신다.

이것은 그이께서 자신앞에 내세우신 요구이기도 하다.

가시는 곳마다에서 평범한 근로자들, 병사들과 아무러한 격식도 없이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기념사진도 찍으시는분이 바로 김정은각하이시다. 조선인민은 그이께서 베푸시는 사랑에 누구나 감격을 금치 못하며 그이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일념에 넘쳐있다.

김정은제1비서를 모시고있는 조선로동당은 어머니당으로서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속에 영원히 승리만을 떨칠것이다.

그렇다. 오늘 세계 진보적인류는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면서 철두철미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조선로동당을 높이 찬양하면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이민위천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조선로동당의 앞길은 찬란하다고 하고있다.

본사기자

유네스코총회 제37차회의에서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 연설

9일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총회 제37차회의에서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이 연설하였다.

그는 유네스코창립헌장이 밝힌 리념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며 지적 및 도덕적단결과 협조에 기초한 인류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이룩하는것이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유네스코의 리념은 새 세기의 첫 10년대가 지난 오늘에도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벌어지고있는 사태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국제관계에서는 주권침해와 내정간섭, 제도전복시도들이 계속되고있으며 유엔을 비롯한 기구적공간을 도용한 강권과 전횡이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세계도처에서 나라간, 세력간, 문명간 대결상황이 지속되고 기후변화와 자연부원의 고갈, 인구의 급속한 장성, 사회적불평등과 같은 사회경제적도전들이 갈수록 심각해지고있으며 인류의 문명과 지속개발에 엄중한 후과가 초래되고있다.

현실은 유네스코가 교육, 과학, 문화, 공보 등 기구권능의 활동분야에서 국제적협조를 도모하여 평화와 평등의 지적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역할을 보다 높여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는 유네스코를 개혁하는것은 새 세기 기구활동의 중심목표들을 달성해나가는데서 그리고 오늘의 변화된 환경에서 미룰수 없는 문제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기구개혁이 유네스코의 국제적지도력을 철저히 유지하며 지적기구로서의 독자성과 고유한 특성을 계속 보장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여야 한다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유네스코의 첫 우선권분야인 교육문제는 세계평화와 인류공동의 번영,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이로부터 본 총회에서는 《2015년이후의 교육》문제가 주요안건으로 론의되게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2015년이후의 교육발전목표수립을 위한 준비단계와 관련한 본 총회 문제토의에서는 초등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중등 및 고등교육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단계별목표설정,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지원강화 등 문제들이 중시되여야 하며 앞으로 그 리행을 위한 실천적인 대책토의도 예견되여야 할것이다.

지속개발목표실현을 위한 유네스코활동에서 과학기술의 발전 및 이전, 문화유산보존 및 보호, 정보와 지식에 대한 보편적접근과 같은 분야들은 발전도상나라들의 능력을 강화하고 북남협조와 남남협조를 더욱 활성화해나갈 때 성과가 이룩될수 있다.

유네스코는 또한 문화간 및 종교간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문화다양성보장과 나라와 지역들사이의 호상리해와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에 더 큰 힘을 넣어야 할것이다.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온 나라 전체 인민이 경제강국건설과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우리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면서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하루빨리 추켜세우기 위한 방향과 혁신적인 방도들을 밝혀주고계신다.

나라의 전반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천적조치들이 취해지고 경제건설과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지난해 우리 나라에서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이 채택됨으로써 새 세기 교육발전의 요구와 세계적추이에 맞게 교육의 질을 높여 새 세대들을 완성된 중등일반지식과 현대적인 과학기술지식, 창조능력을 소유한 인재로 키울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총적목표로 내세우고있는 우리 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있어서 안정되고 평화로운 환경은 더없이 귀중하다.

평화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엄중한 도전에 부닥치고있지만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신심과 락관에 넘쳐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앞당겨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적리념에 따라 유네스코와 모든 성원국들과의 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갈것이며 세계평화와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합류할것이다.

정의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한다

오늘은 팔레스티나인민에게 있어서 뜻깊은 날이다.

지금으로부터 25년전인 1988년 11월 15일 팔레스티나국민리사회 제19차회의에서는 꾸드스를 수도로 하는 팔레스티나국가창건을 선포하고 독립선언을 채택하였다. 팔레스티나국가의 선포는 제국주의자들과 유태복고주의자들에게는 커다란 타격으로 되였으며 자유와 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에게는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그들의 투쟁을 고무추동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나라의 독립을 위한 팔레스티나인민들의 투쟁은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다.

팔레스티나는 장구한 세월 제국주의자들의 지배를 받아왔다. 팔레스티나인민은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을 힘차게 벌려왔다.

제국주의자들은 1947년 유엔을 내세워 영국의 《위임통치》를 받던 팔레스티나를 《아랍인국가》와 《유태인국가》로 분할시켰으며 1948년 유태복고주의자들을 사촉하여 일방적으로 팔레스티나땅에 《유태인국가》인 이스라엘을 조작하였다.

이스라엘유태복고주의자들은 그후 제국주의자들의 지지비호밑에 여러차례의 전쟁을 벌려 팔레스티나땅을 강점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내쫓았다.

팔레스티나인민들은 빼앗긴 령토를 되찾기 위한 투쟁에 일떠섰다. 1958년 팔레스티나민족해방운동이 조직되였으며 그 지도밑에 팔레스티나인민들은 1965년 1월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개시하였다.

1988년 팔레스티나국가창건이 선포된 후 팔레스티나인민들의 투쟁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새 세기에 들어와 민족적권리회복과 독립국가창건을 위한 팔레스티나인민들의 투쟁은 더욱 고조되였다.

2005년 9월 팔레스티나인민들은 간고한 투쟁끝에 1967년 6월이래 감행된 가자지대에 대한 38년간에 걸치는 이스라엘의 군사적강점을 끝장냈다.

팔레스티나인민들은 가자지대에서 이스라엘이 쫓겨난것이 강점의 종식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나라의 완전한 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고있다.

팔레스티나인민들은 이스라엘에 강점된 모든 령토를 되찾고 완전하고 합법적인 독립국가를 창건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굳은 의지를 표명하고있다.

민족적권리를 회복하며 독립국가를 창건하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은 광범한 국제사회계의 지지성원을 받고있다.

팔레스티나인민의 정의의 위업은 세계인민들의 지지성원속에 반드시 성취되고야말것이다.

김수진

중국외교부 대변인 일본당국자의 망발 배격

중국외교부 대변인 진강이 11일 정기기자회견에서 일본당국자의 망발을 신랄히 규탄배격하였다.

그는 일본당국자가 얼마전 중국위협론을 공공연히 떠든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다.

일본은 걸핏하면 중국을 걸고들며 남에게 말 못할 목적을 달성하려 할것이 아니라 력사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현실을 바로 보아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만일 기어코 중국을 적수로 여긴다면 대상을 잘못 선택하고 잘못 타산한것으로서 출로가 없다고 경고하였다.

주일 미군의 군사훈련을 반대

일본 가고시마현의 니시노오모떼시장이 최근 방위성 관리를 만나 주일 미군의 군사훈련을 반대하는 립장을 밝혔다. 주일 미군 항공모함함재기의 리착륙훈련을 시의 마께섬으로 옮겨 진행하는것과 관련하여 그는 민심을 무시한 그러한 훈련계획은 도저히 리해할수 없다고 하면서 그에 반대의향을 표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적들의 책동에 각성할것을 호소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쎄예드 알리 카메네이가 11일 한 상봉석상에서 적들의 음모책동에 경각성을 높일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적들이 이슬람교도들사이에 불화를 조성하려고 획책하고있다고 까밝혔다. 모든 이슬람교나라들은 적들의 음모책동을 짓부시기 위하여 굳게 단결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이스라엘의 그릇된 태도 비난

팔레스티나민족해방운동(파타흐)의 고위성원 모함메드 쉬타예흐가 11일 이스라엘의 그릇된 태도를 신랄히 비난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이 최종적인 평화협정체결에 아무런 흥미도 가지지 않고있으며 오직 팔레스티나령토에 대한 저들의 식민지화를 실현하는데 미쳐돌아가고있다고 단죄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은 팔레스티나—이스라엘평화회담을 국제사회의 압력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리용하고있다고 까밝혔다. 팔레스티나는 포괄적이고 영구적인 평화협정의 체결을 요구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인구

웰남의 인구가 2013년 11월 1일현재 9 000만명에 달하였다.

이날 이 나라 정부가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이에 대해 밝혔다.

지진

일본의 도꾜부근에서 3일 리히터척도로 5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진앙은 도꾜로부터 동북쪽으로 약 48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미국기발을 불태우고있는 이란인민들

공포를 자아내는 총기류범죄

나라마다 자기의 고유한 민족문화가 있다.

매개 나라들은 자기 민족의 고유한 문화를 고수하고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와 민족적특성에 맞게 발전시키며 계승해나가고있다.

그러나 침략과 살륙, 전쟁으로 살찌며 연명하는 미국에는 고수하고 발전시킬 문화가 없다. 있다면 인간을 정신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 썩어빠진 문화와 무시무시한 총기류범죄문화가 있다. 생활의 아름다운 희망과 랑만을 안겨주고 자기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랑으로 되여야 할 민족문화가 없는 미국에는 항시적인 불안과 공포, 인간증오사상을 심어주는 문화 아닌 《문화》만이 있다.

며칠전 어느 한 나라에서 새로 나온 책에는 미국대통령 바라크 오바마가 언제인가 무인기공습문제를 론하면서 보좌관들에게 자기는 《정말로 사람잡이능수》라고 말하였다는 사실이 씌여져있다.

보다싶이 대통령이 자기를 살인명수라고 자처할진대 끊임없이 감행되는 총기류범죄를 두고 미국에 《고유한 문화》라고 아니할수 있는가.

올해 1월에 있은 미국의 총기류범죄사건을 보기로 하자.

새해벽두를 환히 밝히며 어느 한 살림집에서 불이 났다. 불을 끄는 소방대원들을 향해 정체불명의 범죄자가 총을 쏘아 2명을 죽이고 2명은 부상을 입혔다. 새해 첫날 총기류범죄의 서막이 열렸던것이다.

5일 미국의 콜로라도주에서 정체불명의 범죄자가 한 살림집에 뛰여들어 3명을 인질로 잡아놓고 란동을 부리던 끝에 총을 쏘아 모두를 무참히 살해하였다.

7일 오클라호마주의 한 아빠트에서 4명의 녀성이 정체불명의 범죄자가 쏜 총에 맞아 살해되였다.

…

뉴 멕시코주에서 소년이 한 살림집에 뛰여들어 마구 사격을 가하여 가족성원 5명을 무참히 살해, 캘리포니아주의 한 병원에서 범죄자가 의사에게 마구 총질을 하여 그를 무참히 살해, 아리조나주의 피닉스시에 있는 한 사무소건물에서 정체불명의 범죄자가 사람들에게 마구 총질, … 이것이 1월 한달동안에 벌어진 사태들이다. 그러니 지금까지 미국에서 총기류범죄사건이 얼마나 오물처럼 쏟아져나왔겠는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바다물을 다 마셔봐야 그 짠맛을 알수 있는것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매일과 같이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총기류범죄가 저질러져 항시적인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고있다.

미국에서 범죄장소는 영화관, 학교와 대학, 유희장과 경기장, 병원과 살림집 등 사람의 발길이 닿는 그 어디든 다 포함된다.

총기류범죄로 새해가 시작되고 한해가 저물어가는것이 바로 미국사회의 현실이다. 이와 같은 총기류범죄사건들은 썩어빠진 폭력문화가 만연되는 미국사회의 악페를 보여주는 실례에 지나지 않는다.

총기류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미국의 당국자들은 비통한 마음을 금할수 없다느니 뭐니 하면서 그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울것이라고 곱씹어 말하군 한다. 하지만 그것은 속병에 고약바르는 격이다.

미국사회에 지배하는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와 황금만능주의사상, 약육강식의 법칙은 이 나라에서 총기류범죄가 만연하게 하는 온상으로 되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미국대통령 오바마도 총기류문제가 하도 심각하게 제기된것과 관련하여 뒤늦게나마 총기규제수정법안이라는것을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사실상 페안이 될 상태에 놓여있다. 그 막뒤에는 다름아닌 미국의 총기류산업을 조종하고 총기류통제관련 법제정을 각방으로 파탄시키고있는 군수산업재벌들로 무어진 미국총기협회가 있다.

미국에서 계속되는 총기류범죄는 반인민적인 사회제도의 산물로서 앞으로도 절대로 고칠수 없는 《악성종양》으로, 근절될수 없는 고유한 《문화》로 될것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김철룡

가풍이 시꺼먼 집안이 편안한 법이 없다

지금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을 대상으로 불법무법의 정탐활동을 감행한것때문에 《모두매》를 맞고있다.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백악관으로 정탐활동의 진상을 똑바로 밝힐것을 요구하는 전화가 가고 항의각서가 날아가고있다.

미집권자와 외국주재 미국대표부들은 저들의 정탐기관들이 감행한 범죄행위들을 감추고 변명하느라고 진땀을 뽑고있다.

그러나 아무리 오그랑수를 써도 정탐활동을 감추기 어렵게 되여가고있다. 미국이 남몰래 감행한 렴탐행위와 관련한 자료들이 꿰진 보따리에서 물건 쏟아지듯 계속 터져나오기때문이다. 이쪽 언론의 자료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굼때놓고 돌아서면 다른 언론이 그 자료에 신빙성을 부여하는 새로운 소식을 내돌리고있다.

그 숱한 언론의 《입》을 미국이 무슨 수로 막을수 있단 말인가.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외교적마찰과 대립이 심화되고있다. 미국의 대외적영상은 어지러워질대로 어지러워지고있다.

사태가 이렇게 험악하게 번져지자 미국에서 집안싸움이 터지고있다.

얼마전에 오바마가 자기는 다른 나라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정보기관들이 벌리는 정탐활동을 전혀 모르고있었다고 하면서 태연스럽게 시치미를 떼려 하였다.

비동맹국이건 동맹국이건 숱한 나라들이 들고일어나 시비를 가르면서 책임을 따지고들자 다급하게 된 미집권자가 이런 때에는 도마뱀식전술을 써먹는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말하자면 도마뱀이 적수의 추격을 받아 위급하게 되였을 때에 꼬리를 잘라 먹이로 던져주고 제 몸뚱이를 살짝 피하는 식의 전술을 써먹은것이다.

그런데 미국가안전보장국을 비롯한 정탐기관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발끈하였다. 죄는 천도깨비가 짓고 벼락은 고목이 맞는다더니 대통령이 지시하는 대로 고분고분 집행한 자기들이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걸머지고 여론의 《매》를 맞아야 하는가 하는 식이다.

미국가안전보장국과 중앙정보국의 현직 및 전직관리들이 참지 못하고 불만을 쏟아놓고있다. 그들에 의해 35명의 세계여러 나라 지도자들에 대한 전화도청이 백악관과 국무성의 지시에 따른것이였다는것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알게 된 미국의 한 국회의원은 《정말 교활하다. 그것(오바마의 말)은 거짓말이다. 우리에게는 그들의 전화를 도청할수 있는 특별계획이 있다. 중앙정보국 장관도 그것을 인정하였다.》라고 폭로하였다.

그의 이 말을 다시 설명하면 미국공민들에 대한 전화도청행위가 폭로되였을 때에 오바마가 그 사실을 부인해나섰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그런 특별계획이 존재하고있다는것이며 따라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정탐행위를 부정해나서고있는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라는것이다.

사실이 그렇다.

미국에서는 다른 나라 지도자들과 정치가들의 전화를 도청하는것과 같은 문제들이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미행정부와의 합의하에 결정된다. 도청결과들은 대통령과 국가안보문제담당 대통령특별보좌관이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집권자는 자국정보기관들이 감행하고있는 정탐활동에 대해 모르고있었다고 수염을 뻑 쓸었다. 하지만 가랑잎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의 어리석은 술책에 속아넘어갈 사람들은 없다.

미국가안전보장국에서 근무한 이전 관계자는 《다른 나라 지도자들을 도청하는데 대해 모르고있었다는 백악관의 주장은 매일 특별정보보고서를 보지 않는다는것을 의미한다.》고 비꼬아서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백악관이 모르고있었다는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런 작전은 백악관의 지시에 따라 진행되였으며 그 결과는 즉시에 보고되군 하였다.》고 폭로하였다.

내부싸움으로 하여 저들의 너절한 비밀이 더 폭로되고 제 체면이 여지없이 깎이게 되자 바빠맞은 미집권자는 태도를 바꾸어 정보기관들을 《신뢰》한다느니 뭐니 하는 침발린 소리를 늘어놓았다.

하지만 그런다고 결과가 달라지겠는가. 이제는 다 쑤어놓은 죽이다.

밖에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두들겨맞고 안에서 집권자와 정보기관들사이에 책임을 떠밀며 싸움질하는 미국의 처지가 가긍하다고 사람들은 조소하고있다.

본사기자 리경수

새 품종의 먹이풀 개발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화학비료에서 산생되는 온실가스를 대폭 억제할뿐아니라 소고기와 우유생산을 늘일수 있는 새 품종의 먹이풀을 개발하였다. 재배시험과정에 연구사들은 새 품종의 먹이풀이 일산화질소의 방출을 억제할뿐아니라 초산의 류실을 막을수 있다는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몇년동안 이 먹이풀을 재배한 결과 토양속의 질소함유량이 늘어났으며 강냉이를 심은 후 필요한 질소비료의 량이 이전의 절반밖에 들지 않았다.

이와 함께 소한테 오래동안 이 풀을 먹인데 의하면 소고기와 우유생산량이 보통먹이풀을 먹였을 때보다 약 30% 늘어났다고 한다.

세계적인 과일, 남새 생산 및 무역형편

세계적으로 과일, 남새의 생산과 무역이 부단히 장성하고있다. 과일생산량은 현재 7억 3 000만t에 달하고있으며 그 무역량은 2000년의 4 300만t으로부터 7 000만t으로 증대되였다. 또한 오늘날 세계적인 남새생산량은 2000년의 6억 8 000만t으로부터 9억t으로, 그 무역량은 2000년의 1 900만t으로부터 3 600만t으로 늘어났다.

【조선중앙통신】

ㄱ-311786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